

New Renaissance Woman

이탈리아 밀라노의 갤러리 닐루파Gallery Nilufar와
 닐루파 디포Nilufar Depot의 대표이자 세계적인 가구 디자인 컬렉터
 니나 야샤르Nina Yashar는 '절대적인 취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여인이다.
 우연과 행운, 집념과 집착의 연속으로 찾아낸, 솔직한 욕망으로 뚝뚝 뭉친 컬렉션. 다양성이
 존중받는 뉴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고 말하는 컬렉터 니나 야샤르를 만났다.

게라지이자 대형 콘셉트 전시가 열리는
 닐루파 디포에서 만난 니나 야샤르. 본인이 발굴했고
 가장 애정하는 작가 마티노 갬퍼Martino Gamper의
 오프 커티노 모듈러 다이닝 테이블(2016)과 그녀가 존경하는
 디자이너 한스 아르네 야콥센Hans Agne Jakobsson의
 천장 램프(1960s) 작품 아래서 포즈를 취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 폰티Gio Ponti(1950)의 빈티지 체어와 캐비닛, 디자이너 린지 아델먼Lindsey Adelman의 다양한 조명을 이용해 예술적으로 꾸민 공간.



비비드한 컬러의 벽과 과감한 컬러의 가구 배치가 인상적이다. 컬러풀한 조명은 마리나 드래고미로바 & 홀레트Marina Dragomirova & Howlett(2015)의 작품.



거울 작품(2015)은 린지 아델먼, 소파(1950s)는 페데리코 무나리Federico Munari 작품.



브라질 출신 호세 자닌 드 칼다스Jose Zanine de Caldas의 라운지 체어(1949)가 돋보인다.



창의적인 쇼윈도로 이루어진 갤러리 nilufar 입구. 디자이너 아르네 보데르Arne Vodder의 장미목 서랍장(1950s)이 놓여 있다.

취향이 남발되고,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하는 시대. 한 번 쯤 자신의 취향이 진실된 가치관에서 온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우하우스 디자이너들의 취향은 평생에 걸쳐 일관된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세속적인 아름다움, 개성과 유행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컬렉터 나나 야샤르의 컬렉션을 마주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솔직한 욕망으로 모은 건실한 수집품. 그녀는 시대정신이나 유행을 탈피한 수집을 원하는 컬렉터다.

이란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이탈리아로 이민 온 나나 야샤르는 카펫 컬렉터이자 딜러인 아버지를 따라 세계 여행을 하며 ‘취향을 넘어서 자신의 것’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1980년, 그녀는 갤러리 닐루파란 이름으로 자신의 공간을 처음 열었다. 그녀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쇼윈도 때문이었다. 19세기 프랑스 오뷔송Aubusson 카펫에 장 프루베와 샬롯 페리앙 Jean Prouvé and Charlotte Perriand의 테이블, 조 폰티Gio Ponti চে어와 디자이너 베탄 로라 우드Bethan Laura Wood와 마티노 갬퍼Martino Gamper의 작품을 놓은, 편견을 무너뜨리는 배치법은 세상 어디에도 보지 못한 생경한 미감을 불러일으켰다.

2015년 오픈한 개라지 닐루파 디포Nilufar Depot는 취향의 민낯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곳이다. 4층 높이의 광활한 스페이스는 층마다 침투한 가구와 소품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의 컬렉션에 원칙이 있나? 원칙은 없다. 그저 ‘다른’ 물건이 중요하다. 다르다는 것은 자신다운 것이다. 누구의 조

시대정신이나 유행을 탈피한, 솔직한 욕망을 위한 물건을 컬렉팅한다. 트렌드는 무의미하다. 자체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존경하는 뉴 르네상스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다.

언이나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직관으로 끌리는 것, 솔직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말이다. 내 컬렉션의 공통점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함이 특징인 희귀한 것’이다. 특히 집에는 희귀한 빈티지 물건이 많다.

당신이 처음 구입한 것과 최근에 구입한 것은 무엇인가? 아끼는 컬렉션을 몇 개 소개해달라. 처음 구입한 것은 동유럽 베사르비안Bessarabian 카펫이고, 최근에는 디자이너



안젤로 렐리Angelo Lelli의 테이블 램프를 구입했다. 밀라노의 아파트에는 알바르 알토Alvar Alto, 한스 베그너Hans Wegner, 브루노 마트손Bruno Mathsson의 가구와 다니엘레 이나모라토Danielle Inamorato의 회화, 파우스토 멜로티Fausto Melotti의 키네틱 아트 작품 등이 놓여 있다.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프랑코 알비니Franco Albini의 리빙 룸 세트와 안나 카스텔리 페리에리Anna Castelli Ferrieri의 책장은 절대 누군가에게 팔지 않고 영원히 소장하고 싶은 물건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뉴 르네상스 시대가 밀라노에서 시작될 것이다”란 말을 했다. 그 의미는?

밀라노는 생동감이 넘친다. 이탈리아에서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서로 뭉쳐 다양한 이벤트를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다. 뉴 르네상스 시대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압력이 아닌 자력으로 혁명을 모색하고 서로의 다양한 면을 존중하는 시대다. 이 시대는 트렌드나 개성 같은 단어가 무의미하다. 미적 경험과 교육으로 파악한 자신만의 심오한 취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호기심 있게 타인의 것을 관찰하기를 권한다.

올해의 가장 큰 디자인 & 아트계 이슈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17 개최 기간 동안 갤러리 닐루파와 닐루파 디포는 ‘브라질리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다. 브라질은 예술, 디자인 영역에서 거의 소외된 나라다. 하지만 난 오랫동안 이 나라를 탐구하면서 이탈리아 디자인과 수많은 공통점을 찾아냈다.

컬렉팅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릴 때부터 컬렉팅은 그저 일상이었다. 컬렉팅은 삶 그 자체다. ㉠

나나 야샤르는 마티노 갬퍼Martino Gamper나 베탄 로라 우드Bethan Laura Wood 같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발굴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영 디자이너 페데리코 페리Federico Peri의 작품에 빠졌다.



여러 가구와 예술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 각 층의 방에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녀의 카펫 컬렉션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프랑스 오뷔송Aubusson, 유럽의 코카서스Caucasus,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Berber, 스칸디나비아, 스페인, 티베트, 중국, 터키 등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물건이 가득하다.